

<書 評>

「Eugene F. Brigham」 & 「James L. Pappas」

Managerial Economics 『管理經濟學』

The Dryden Press Inc. Hinsdale, Illinois, 1972. pp. Xiii+493.

金 正 年

I. 머 릿 말

최근의 企業經營에 있어서 企業의 經濟理論에 대한 重要性이 매우 높아져가고 있다. 本書의 序文에서도 指摘하고 있듯이 한동안 經濟學과 經營學間의 相違點에서 일어난 結果로서 經營學은 經濟學理論과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傾向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이 두 分野間의 밀접한 相互依存性을 再認識하기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企業의 經濟理論의 役割은 企業實務의 記述과 企業經營管理를 도우는 規範的인 目標을 設計하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經濟專門家들은 이같은 企業의 目標을 달성함에 있어서 現實的인 經營管理에 밀접한 聯關性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經營專門家들은 經營管理의 諸般分野에서 있어져 가고 있는 經濟專門家의 理論的인 貢獻을 점차적으로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특히 本書의 著者는 金후의 經營學의 教科內容의 編成에 있어서 이같은 事項을 強調하고 있다. 여기서 구대여 言及할 것은 아니나, 經濟學은 經營學의 教科內容上에서 본다면 2가지의 기본적인 側面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經營學徒에게는 첫째로 2學期間에 걸쳐 經濟學의 一般理論——macro와 micro 理論——을 受講케 하는 方法과, 둘째로는 business application의 問題(특히 國民經濟와 企業經營의 關係分析)에 焦點을 두고서 企業의 意思決定에 直接的으로 關聯되어 있는 經濟理論에 關係 보다 엄격하게 學習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微視經濟理論이 곧 管理經濟學의 分野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管理經濟學은 傳統的인 價格理論의 內容과는 다르며, 따라서 本書에서도 企業內部에서 이루어지는 意思決定에 關聯된 微視理論의 側面에서의 엄밀한 發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現實的인 意思決定過程을 可能케 하는 것을 強調하고 있으며, 특히 理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現實의인 問題와 事例研究 및 例題를 重要視하고 있다.

本書에서는 管理經濟學의 教科內容에 관해서 몇 가지의 重要한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

그 適用範圍는 確實한 標準的인 微視經濟學의 問題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즉 需要理論과 이의 測定, 生産理論, 費用分析, 市場機構, 價格制度(practices), 獨禁理論, 投資決定등의 課題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管理經濟學에서 다루는 意思決定은 不確實하다는 條件아래서의 假定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最適化와 不確實성을 다루는 技法은 이미 開發되어 있으므로 이 技法은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할 것을 시준해 주고 있다. 이들 技法의 기초로서는 微積分學과 確率理論이며 이 分野의 初步者를 위해 매우 친절하게 풀이하고 있다.

과거의 大部分의 管理經濟學의 教科書는 그 內容上에 있어서 各章에 걸쳐 統合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焦點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① 經營의 主要目標은 企業價値의 最大化에 있다는 事實의 인식과 ② 企業價値는 不連續的, 現存 및 期待豫想利潤額을 決定하는데 필요한 basic valuation model에 焦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본다면 本書의 主要內容은 諸般要素에 關聯되어 있는 評價모델에 치중되어 있는 듯한 印象을 준다.

이 基本的인 評價모델의 焦點은 企業에서의 많은 functional areas간의 關聯성을 더욱 明確하게 묘사하도록 되어 있다. 마케팅 生産 財務간의 相互關聯성을 明確하게 하며 會計情報(accounting information)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II. 構成內容과 特徵

1. 本書의 目標

- (1) 經營意思決定에서 가장 중요하고, 깊은 關聯을 가지고 있는 傳統的인 經濟學의 局面을 提供한다.
- (2) 個別的으로 되어 있는 functional departments를 구성하는 것과는 對立되는, 즉 全體를 統合된 것으로 본 企業의 特質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理論的 基礎(根據)와 framework를 提示한다.
- (3) 企業과 社會間的 相互關聯성을 論證하고 또한 社會經濟的變動에서의 動因(管理者)으로서의 企業의 重要한 役割을 說明한다(p. 13).

2. 內容과 特徵

本書는 序文에서 밝히고 있듯이 各大學의 12名의 教授들이 教科用으로 4學期間의 實驗講義를 계속하면서 執筆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內容은 모두 13章과 Appendix (A) (B)로

되어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管理經濟學의 活用과 適用

企業의 基本的인 經濟모델에 焦點을 두고 企業의 中心的인 焦點인 企業價値의 最大化問題에 力點을 둔다.

(2) 最適化技法

이미 주어진 目標에 대해 最善의 方法을 탐구하는 과정으로서의 最適化의 問題를 다룬다.

(3) 危險分析

기초모델은 risk를 포함한 것으로 擴大하여 risk測定의 方法과 이들의 實驗問題를 다룬다.

(4) 需要分析

(5) 需要測定の 技法

이 두 章은 企業의 意思決定에 대한 經濟理論의 適用과정으로서 需要理論을 展開한다.

(6) 生産理論

(7) 線型計劃法

生産理論은 주로 第7章에서 다루며, 生産計劃의 主要要因은 第7章의 線型計劃의 問題에서 다룬다.

(8) 費用理論

(9) 經濟的 費用分析

費用函數의 測定方法은 測定과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의 問題點을 다룬다.

(10) 市場機構와 價格理論

여기서는 需要, 生産, 費用 등의 役割에 대해서 統合的으로 관찰하며 이 統合體가 다시 產業構造에 미치는 問題를 分析한다.

(11) 價格實踐(수단, 實務, 慣例, 習性)

價格政策 이전에 相互 다른 市場機構 아래에서 要求되는 問題를 論議하며, 또한 不確實性的인 現實에서의 經濟理論의 制約으로서 企業이 現實的인 價格政策을 어떠한 方向으로 수립할 것인가를 살핀다.

(12) 統制와 獨占禁止

(13) 長期投資決定: 資本豫算計劃

여기서는 資本豫算과 需要分析을 어떻게 結合시키느냐의 問題와 또한 生産, 費用 理論과 危險分析은 戰略的인 長期投資決定의 側面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論議한

다(p. 13).

Appendix A ; 複利利子

Appendix B ; 豫測論

이상의 本書의 構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다른 書籍에 비해 새롭고 特色있는 部分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第1章은 이미 部分的으로 指摘한 것과 같이 管理經濟學의 方法論的인 問題와 企業의 經濟모델을 매우 具體的으로 다루어 주고 있다. 企業의 意思決定過程에서 극히 중요한 危險分析의 問題에 관한 諸般의 기초개념과 특히 企業價値의 評價모델에 도입된 不確實한 條件 아래서의 意思決定에 필요한 몇 가지의 技法을 다루고 있다. 특히 效用理論에 根據를 둔 危險忌避(risk aversion)의 假定은 管理經濟學에서 이용되는 意思決定모델의 기초적인 前提로서 企業의 價値評價에 直接的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pp. 62-66).

第3章의 危險分析에 있어서는 매우 흥미있는 事例를 다루어 주고 있다(pp. 56-77). 즉 이 危險問題는 企業의 意思決定過程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危險에 대한 企業의 價値評價모델(pp. 66-70)에 도입하는 過程과 不確實한 條件 아래서의 企業의 意思決定을 위한 몇 가지의 技法으로서의 decision trees와 simulation을 다루고 있다(pp. 70-77).

第4, 5章에서는 企業의 意思決定에 있어서 經濟理論의 適用으로서의 需要問題에 焦點을 두고 있다. 第4章의 需要理論에서는 一般的인 需要豫測理論 이외에 特記해 둘 것은 直接需要와 派生需要(direct versus derived demand)의 問題를 論議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生産財貨에 대한 이 派生需要의 問題를 고려함에 있어서 加速度原理를 도입하는 問題와 한편 이의 限界性도 다루고 있는 점이 매우 有益하다고 생각된다(pp. 105-107).

第4章에서는 需要分析에 관한 經濟理論의 適用을 취급한 것이며, 第5章은 第4章에서 다룬 이들의 理論을 土臺로 하여 需要의 豫測技法으로서 需要函數의 構造形態와 母數(parameter)의 推定 및 確定과 이의 檢定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識別問題(identification problem)를 다루는 需要函數뿐 아니라, 一般的인 函數關係를 規定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經濟變數間의 밀접한 相互關係로 인하여 正確한 推定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란 사실을 說明하고 있다. 특히 이 需要 및 供給函數에서는 變數 相互間의 聯關關係(simultaneous relationship)의 問題解決은 한 曲線의 移動이 다른 한 曲線의 移動과 區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相互關聯된 函數를 識別해 내는데 充分하고 必要한 情報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聯關關係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 函數의 推定過程에서 야기되는 問題가 있다. 이것이 곧 識別 혹은 判別의 問題이다. 本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극히 概念的인 것만을 論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統計學的인 推

定에서는 매우 중요한 問題이므로 보다 具體的인 內容과 설명은 다른 書籍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p. 116-119, L. R. Klein, An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1962, pp. 8-24, chapter 2. Statistical Demand Analysis, pp. 75-81. 참조).

둘째는 需要函數의 母數를 推定함에 있어서 마케팅에서 널리 이용되는 消費者面接(consumer interviews) 및 市場實驗法(market experimentation)이 있다.

셋째는 一般的으로 널리 이용되는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과 回歸統計量(regression statistics)을 論議하고, 이중에서도 回歸統計量에 관해서는 統計學을 學習한 者를 위해서 매우 包括的으로 整理되어 있는 것이 다른 책과는 매우 다른 特色이다. 즉 여기서 決定係數(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設定한 數學的 모델內의 獨立變數들이 從屬變數를 어느 정도 잘 說明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係數이다. 推定の 標準誤差, 回歸係數의 標準誤差,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등의 內容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의 事例도 들고 있다(pp. 130-140).

第10章의 市場構造와 價格理論에서는 주로 需要函數와 費用函數가 서로 相互作用하는 市場構造를 決定하여, 이 決定이 이루어지는 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즉 市場構造를 決定하는 諸要因(製品의 特性, 生産函數의 영향, 購買者의 영향), 純粹競爭, 獨占, 非獨占競爭問題, 寡占問題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pp. 257-282).

第11章은 價格策定の 實際問題를 다루고 있다. 一般的으로 이용되고 있는 價格策定方式은 cost-plus pricing(費用·加算價格策定)이며, 사실 限界分析에 의거하지 않는 方式이다.

第11章에서는 企業의 價格策定에 관한 問題를 여러 가지의 方式에 의해 現實的인 意義와 理論的인 根據를 다룬 것이다. 첫째는 여태까지 널리 活用되어 왔던 費用包含價格策定(cost-plus pricing)方式, 둘째는 價格策定에서의 増分分析(incremental analysis), 셋째는 價格差別化(price discrimination)의 問題이며, 여기서는 價格差別化 아래서의 利潤極大화와 이에 관한 微分解法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넷째는 多品種製品價格策定(multiple product-pricing), 다섯째는 轉稼價格策定(transfer pricing) 등과 같은 理論에 대해 具體的인 事例를 다룬 점에서 初歩者를 위해 매우 有益하다.

第12章은 作業規制와 獨寡占禁止法을 다루며, 특히 政府에 의한 3가지의 制約條件, 즉 獨占利潤을 規制하기 위한 制約條件, 둘째는 國民經濟發展에서 본 有益한 水準에서의 競爭維持를 가능하게 하는 獨占禁止法, 셋째는 公害防止의 規制要件과 賃金 및 價格統制 등의 企業運營上의 統制構造 등을 檢討하고 있다. 이 章의 主要內容은 企業運營上의 統制(여기서의 事例研究를 Steam Boiler 產業에 관해 實證的으로 다루고 있음), 獨占統制, 價格規制(price

regulation)—Sherman Act, Clayt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Robinson-Patman Act, Celler Anti-merger Act—그리고 獨占禁止行動에 관한 經濟分析(여기서는 주로 Concentration問題를 다루고 있음)과 같이 매우 광범한 범위에 이르기 까지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이 本書의 特色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맺 음

이상에서 살펴본 各章의 內容은 종래의 經濟學教科書에서 보는 것과 같이 部分的으로는 重複되는 것도 있으나, 그 內容의 展開過程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本書의 內容上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第12章의 獨占禁止와 規制에 관한 보다 現實的인 事例 研究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우리들의 깊은 關心을 끌게 하는 것은 第1章의 內容일 것 같다. 즉 第1章에서 논의되는 管理經濟學의 活用に 있어서 經濟理論의 應用으로서의 經濟學과 또한 企業經營의 實踐的인 方法論에 관한 問題點을 매우 興味있게 다루어 주고 있다. 그러므로 本書를 통해 著者들은 經濟學과 企業經營學의 두 側面에 관한 하나의 體系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強調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側面, 즉 tool course로서 確정한 理論과 方法論, 그리고 技法의 側面에서는 functional areas로서의 marketing, 人事, 會計, 財務, 生産을 들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몇 가지의 問題點을 指摘해 두고자 한다.

첫째, 企業의 意思決定過程에서의 管理經濟學의 역할에 관해서 본다면 管理經濟學이 經濟理論과 方法論을 提示하는 傳統的인 經濟學과, 企業의 意思決定問題를 다루는 企業經營學으로써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에서 곧 管理經濟學 그 자체는 經濟理論의 應用과 企業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方法論으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現實的인 企業問題에 대한 最適解를 다루게 된다는 것을 明確하게 밝혀 주고 있다.

둘째 傳統的인 經濟學과 管理經濟學의 관계와 企業運營과 管理經濟學의 關係에 대해서도 區分하고 있으나 이 區分에 관해서는 다소의 다른 意見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傳統的經濟學의 分類

理 論 ; 微視經濟學

巨視經濟學

特殊分野 ; Agricultural Economics

Comparative Economics

Econometrics

Economic Development
Foreign Trade
Industrial Organization
Labor Economics
Money and Banking
Public Finance
Stabilization Policy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Welfare Economics

強調分野 ; 規範的經濟學(Normative focuses on prescriptive statements)

實證的經濟學(Positive focuses on description)

經營學의 分野

職能分野 ;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Personnel

Production

分析分野 ; Accounting

Behavioral Science

Computer Science

Management

Managerial Economics

Quantitative Analysis (O.R)

特殊分野 ; Banking, International Business

Insurance, Real Estate

Transportation

綜合分野 ; Management, Managerial Economics

물론 이같은 分類基準에 대해서도 다소의 異論이 있을 것 같다. 사실 經營學은 經濟學에 비해 보다 細部的이며 새로운 分野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今후의 經營學教育의 教科課程의 編成上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管理經濟學은 첫째 functional areas에서 利用될 것에 대비하여 tool course로서의 역할을 하며, 둘째는 많은 functional

areas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管理經濟學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社會에서의 企業의 役割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p. 4). 다시 말해서 이것은 企業과 社會間的 相互關聯性을 중요시한 것이며 이로써 管理經濟學은 企業의 重要役割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다음에는 企業의 社會性, 社會厚生問題 그리고 獨寡占問題와 公害問題에 關心이 기울어진다. 企業體는 人間과 物理的 資産과 기타의 情報——技術, 販賣額, 協力 등으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企業은 모든 資源(財貨·서비스의 生産 및 分配)의 配分過程에 있어서 有益하다는 理由에서 存在하고 있다. 그러므로 企業 그 자체는 社會厚生 指標를 極大化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게끔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指摘한다.

이에 관해, 과거 美國에서 經驗한 일종의 傳統的인 方法은 經濟的·政治的體制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經濟制度 그 자체는 市場機構를 통해서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 및 分配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企業은 消費者의 欲望이 무엇인가를 決定해야 할 것이며, 製品生産에 所要되는 資源의 調達過程을 통하여 生産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를 分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은 이 과정에 참가한 資本 勞動 原料의 供給者에게 販賣收益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곧 계급간의 競爭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첫째 어느 階級은 企業에 의해 價値창조에 대한 몫을 많이 얻기 위해 過剩的인 經濟力을 얻을려고 한다. 가령 電燈用電力生産과 分配의 經濟學을 說明하기 위해서 單一企業이 한 나라에 供給해 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獨占企業體인 電力會社는 消費者를 착취하는 위치에 있으며 결국 초과利潤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착취에 대한 社會的解決方 案으로서는 規制이다. 사실 이 問題의 規制는 매우 어려운 問題이면서도 매우 緊要한 課題이다.

둘째, 社會의 經濟發展에서의 일어나는 두 번째 問題는 規模經濟 또는 다른 條件으로 인하여 制限된 企業數가 주어진 市場에 역할을 하는데서 일어나는 問題이다.

여기에 만일 企業間的 價格設定에서 完全競爭이 이루어진다면 착취는 생길 수 없으나, 이것이 다른 企業과 공모한다면 여기에 超過利潤이 일어난다. 獨占禁止法은 이같은 공모를 防止하기 위해서도 취해지는 것이며, 競爭企業의 合併을 防止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合併은 根本的으로 競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直接的인 規制와 같이 獨占禁止法은 任意的인 要素를 內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管理者의 努力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問題는 일종의 政策으로서 규정되는 經濟的 公平性을 위해서는 매우 緊要한 것이다.

셋째는 不確實한 條件 아래서의 企業은 勞動者를 착취하는 傾向이 있다. 이 法則은 企業

의 契約力을 均等化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같은 勞働法은 企業이 集團契約을 감수하게 하며 어떤 不公平한 關係를 삼가하도록 하는데 있다.

빛재는 企業生産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대한 經濟制度의 問題이다.

이같은 實用的인 規制와 獨禁法, 勞働法, 公害統制規制 등의 모든 法令은 企業行動의 새로운 方向設定을 위하여, 또한 이 制約된 企業行動에 의해서 광범위한 社會目標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연코 취해져야 할 課題들이다.

끝으로 Brigham과 Pappas의 著書에서 본 第1章의 內容과 對照的인 Hague D.C.의 內容을 살펴두는 것이 매우 有益할 것 같다. Hague D.C.의 著書에서는 企業의 經濟的·財務問題의 全般에 걸쳐 論議함에 있어서 統制問題보다도 意思決定問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특히 管理經濟學이란 題目 아래서 管理會計學과 operational research가 個別的으로 다루어져 왔던 것을 하나의 統合된 것으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이것이 곧 意思決定論의 새로운 方向提示라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D.C. Hague, Managerial Economics, Analysis for Business Decisions, 1969, perface, pp. 1~2).

한편 Brigham과는 管理經濟學의 內容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Hague도 經濟學의 一部分으로서의 micro-economics는 주로 個別的인 消費者行動 問題와 企業 혹은 企業그룹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데서 이 問題에 焦點을 두고 있다(p. 5). 따라서 Hague는 operational research와 管理經濟學 그 자체는 企業의 有益한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問題에 關係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그가 말하는 管理經濟學은 企業의 意思決定問題를 理解하고 分析함에 있어서 극히 필요로 한 기초적이고 專門的인 問題를 提供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管理經濟學은 operational research와 經營學에서 當面한 意思決定아래서의 專門的인 問題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Operational Research는 經營者의 業務를 도와주는 무기로서의 企業內部的 機能的인 專門家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活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管理經濟學은 經營者로 하여금 instant's operational research를 수행케 하는 分析器具를 提供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는 점이다.

최근의 Management accounting은 과거의 Managerial economics와 Management accounting간의 齟齬를 좁혀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現在 이같은 사실은 만약 會計處理資料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企業의 意思決定은 管理經濟學의 概念과 分析에 쉽게 適合되는 것을 허용하는 形態로서 規定된다는 사실이 實證되어가고 있다(pp. 7-8). 이 점은 점차적으로 情報經營의 原資料가 된다는 것과 또한 會計處理情報 그 자체는 企業의 意思決定過程에서 필요로 하는 全體 情報提供의 중요한 一部分이란 점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p. 8).